

90년대 한국문화와 實事求是

— 문화부 발족을 지켜보면서

金京熙

출판인 · 지식산업사 대표

우리는 '三重의 軸'이 도는 변화의 한가운데서 1980년대를 다 보내고 20세기 마지막의 10년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화가 그 제1의 축이고, 동·서 세계의 변화가 제2의 축이며, 이 두 축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남과 북의 통일 문제가 바로 그 제3의 축이다.

'사회 내부의 민주화'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남북의 통일'이 겨레의 지상과업으로 등장한 것도 한 두해 전의 일이 아니었다. 돌이켜 보면, 1세기도 더 훨씬 전에 우리 민족사회는 전근대적 사회를 벗어나 근대적 민족국가를 수립해야만 했고, 그 무렵부터 그러한 과제를 놓고 일부 선각자 또는 선각자집단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거의 실패로 돌아갔으며, 마침내는 타민족의 지배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전근대사회를 벗어나 근대적 민족국가를 수립'한다는 대과제는 식민지체제하에서 더욱 절실한 것으로 되어 우리 겨레의 총역량은 '독립운동'으로 모아져야 했다. 그러나 반세기 가까운 외민족 통치의 질곡은 스스로의 힘에 의한 독립쟁취가 아니라 '알타체제'의 부산물인 남과 북의 분단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따라서 1945년 8·15해방 이후 지금까지 '6·25 민족상잔의 비극'을 정점으로 '민주화'와 '통일'은 더욱 멀어져가는 듯했다.

그러나 시간의 변화는 곧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다수 민중의 염원과 행동이 새 역사를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의 현실화를 보여주었다. 지금 민주화를 주장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동서를 막론하고 세계의 변화를 실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다시 우리 겨레 내부에서 통일을 말하지 않을 지도자가 누구란 말인가.

우선 세계의 변화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놓고 잠시 생각해보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과하는 사이에 세계체제는 '베르사이유체제'에서 '알타체제'로 바뀌었고, 민주화의 물결은 드디어 동유럽과 중국대륙에까지 미쳐 '알타체제'는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1세기 전에 짊어진 민족적 과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인류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본다. 그것은 다름아닌 '지구 파멸의 위기'이다.

어떻든 우리 겨레 6천만은 지구상의 한 성원이고 두 쪽으로 갈라져 있지만 타민족이 무시 못할 정도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겨레의 할 일은 무엇이며, 그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올바른 방향[求是]은 오직 있는 현실 그 자체[實事]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앞으로 주어진 3,650여일, 즉 1990년대의 10년은 21세기의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가늠할, 참으로 우리 역사에서 황금의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시점에서 정부 안에 '문화부'가 창설된다는 것은 '21세기의 세계'를 주도할 미래의 '한국문화 방향'을 설계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라'는 국민의 뜻에 다름아닐 것이다.

초점 2 "도서관 藏書 확충이 시급하다"

논단 4 東亞에서의 국제저작권의 재평가/韓勝憲

연재기획 6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⑦
—해방직후의 도서유통업계

서평 8 W.브로드 「背信의 科學者들」—李成奎

N. D. 뉴엘 「창조와 진화」—梁瑞榮

9 허승일 역 「키케로의 의무론」—尹以欽

안형관 「화이트헤드 철학의 이해」—鄭淵弘

10 崔章集 「韓國現代政治의 構造와 變化」—金世均

이효성 「정치언론」—이범수

11 梁秉祐 편 「歷史家와 歷史認識」—金榮漢

앨런 블록 「서양의 휴머니즘 전통」—李光周

12 J. M. 마타이 「그래픽디자인의 근본문제」—李元馥

미노와 시게오 「國際出版開發論」—李重漢

13 남진우 「바벨탑의 언어」—이광호

崔一男 「그때 말이 있었네」—洪廷善

표지인물 14 「한국女俗史」 펴낸 金用淑교수

시간화제 16 조선시대 선비의 허상과 실상

17 조선후기 商人 활동과 상업정책

출판화제 18 학술적 이용가치 높은 기초자료집 「分野別 文獻目錄」

서울지리 변천과정의 한자리에—「서울의 古地圖」

뉴스 3 "도서관 업무를 문화부로 넘겨야"—出協건의

15 玄岩 趙相元 회장 '희수' 잔치 성황

16 문화예술상에 金炳翼씨—출판·잡지인 표창

해외출판 19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 레너드 '서한집' 출간

리포트 20 출판연구·출판교육의 국제화 다짐/閔丙德

지금 독서중 22 김지하 이야기모음 「남녘방 뱃노래」—소설가 郭義珍씨

作家同人의 「때가 악하나라」—한솔기획 高慶錫씨

23 맨타크 치아 「제목이 필요없는 책」—잡지기자 朴永泰씨

張正龍의 「江陵官奴假面劇연구」—교사 李良燮씨

컬러 24 월간 「자동차생활」 발행인 金在灌씨의 書架

26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27 璽工도서

28 시간안내

38 200자 안내/자료집/영인본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프리즘 48 '만화' 즐겨 읽는 일본의 대학생

48 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